

델리 브리핑

[Key Indicators]

1. 주요 경제지표

[Issue and Trend]

2. 총선 100일 여론조사 주요내용

[Focus and Analysis]

3. 인도의 수출구조 변화: 국가 및 상품

[Forum and Seminar]

4. 2047년 인도 경제



주요 내용

▶ [Key Indicators] 주요 경제지표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7%로 전월보다 0.2%p 증가하였으나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를 유지, 9월 제조업과 서비스 PMI는 각각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56.5와 58.9를 기록하며 확장세를 지속
-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하며 전월(-1.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수입은 같은 기간 3.3% 증가하였으나 전월(7.4%) 대비 증가세가 둔화

▶ [Issue and Trend] 총선 100일 여론조사 주요내용

- 2024년 4~6월 진행된 총선(Lok Sabha)이 8월에 진행되었다면 여당인 BJP를 중심으로 한 국민민주연합(NDA)이 실제 결과보다 6석을 더 차지했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차기 총리로도 여전히 모디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한편, 야당에서는 INC 소속의 라홀 간디의 지지율이 높게 조사되었음.
- BJP를 중심으로 한 NDA 정부의 주요 성과로는 아요디아 힌두교 사원 건설이, 주요 실정으로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조사됨.
- NDA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 3분의 1 이상이 추후 6개월간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함.

▶ [Focus and Analysis] 인도의 수출구조 변화: 국가 및 상품

- 인도의 수출은 지난 20년 이상 연평균성장률 10% 이상을 기록, 2000/01년 440억 달러에서 2023/24년 4,370억 달러로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네덜란드,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은 반면, UAE,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등의 수출점유율은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영국, 싱가포르, 독일 등은 다소 주춤함.
- 지난 6년간 전자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섬유, 보석 및 귀금속, 해양수산물, 가죽 제품의 비중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엔지니어링, 화학, 농산물, 제약 등의 점유율 추이는 다소 정체됨.
- 인도의 대미국 수출은 2018/19년 475억 달러에서 2023/24년 774억 달러까지 확대된 가운데 보석, 의약품 조제 및 바이오 등의 수출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석유제품과 통신 기기 수출이 급증함.
- 동기간 인도의 대중국 수출은 134억 달러에서 17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은 4.4%에서 4.1%로 하락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 석유제품, 해양수산물 등임.

▶ [Forum and Seminar] 2047년 인도경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연평균 1%의 저성장률을 경험하는 가운데 인도는 2047년까지 고소득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인도는 2047년까지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본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이 7.5% 이상 지속되어야 함.
- 글로벌 경제 둔화는 인도의 성장 궤도에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지속적인 고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인도는 경제 활력과 회복력을 자극하는 적극적인 정책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인도의 경제 회복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기술, 인적 자본에 대한 목표 투자 등이 필요

Key Indicators

1. 주요 경제지표

가. 국민 계정 (GDP, GVA) 부문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구분	FY20/21	FY21/22	FY22/23	FY23/24				FY24/25
				Q1	Q2	Q3	Q4	Q1
GDP	-5.8	9.7	7.0	8.2	8.1	8.6	7.8	6.7
총 소비	-4.6	9.8	7.1	-	3.9	2.7	-	-
민간 부문(PFCE)	-5.3	11.7	6.8	5.3	2.4	3.5	4.0	7.4
공공 부문(GFCE)	-0.8	0.0	9.0	-0.1	13.5	-3.2	0.9	-0.2
총 고정 자본 형성(GFCF)	-10.6	25.4	2.0	8.5	11.6	9.1	6.5	7.5
수출	-7.0	29.6	13.4	-6.5	5.3	3.4	8.1	8.7
수입	-12.6	22.1	10.6	15.3	11.9	8.3	8.3	4.4
GVA	-4.1	9.4	6.7	8.3	7.7	6.8	6.3	6.8
I. 농림어업	4.0	4.6	4.7	3.7	1.6	-0.8	0.6	2.0
II. 산업	1.1	9.6	-0.6	5.0	13.6	10.9	8.3	7.4
광업	-8.2	6.3	1.9	7.0	11.1	7.5	4.3	7.2
제조업	3.1	10.0	-2.2	5.0	14.4	11.6	8.9	7.0
전기·가스·수도업	-4.2	10.3	9.4	3.2	10.5	9.0	7.7	10.4
III. 서비스업	-7.9	10.6	9.9	10.4	6.9	7.4	7.0	7.7
건설업	-4.6	19.9	9.4	8.6	13.5	9.5	8.7	10.5
무역·숙박·운송·통신·방송업	-19.9	15.2	12.0	9.7	4.5	6.7	5.1	5.7
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업	1.9	5.7	9.1	12.6	6.2	7.0	7.6	7.1
공공 행정·국방·기타서비스업	-7.6	7.5	8.9	8.3	7.7	7.5	7.8	9.5

주: 실질 기준.

자료: RBI(2024), 「Annual Report 2023/24」, NSO(2024.8.30.) 'Press Note on Estimates of GDP for the First Quarter (April -June) of 2024-25'를 참고하여 정리

나. 산업·고용·통화·대외 부문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구분	2023년						2024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물 부문												
산업 생산	11.9	2.5	4.4	4.2	5.6	5.4	5.0	6.2	4.7	4.8	-	-
광업	13.1	7.0	5.2	6.0	8.1	1.3	6.8	6.6	10.3	3.7	-	-
제조업	10.6	1.3	4.6	3.6	4.9	5.8	3.9	5.0	3.2	4.6	-	-
전기업	20.4	5.8	1.2	5.6	7.6	8.6	10.2	13.7	8.6	7.9	-	-
자본재	21.7	-1.1	3.7	3.2	1.7	6.6	2.7	2.9	3.8	12.0	-	-
내구성 소비재	15.9	-4.8	5.2	11.6	12.6	9.5	10.0	12.6	8.7	7.9	-	-
비내구성 소비재	9.3	-3.4	3.0	-0.3	-3.2	5.3	-2.5	2.5	-1.5	-4.4	-	-
주요 인프라 생산	12.7	7.9	5.1	4.2	7.1	6.3	6.9	6.9	5.1	6.1	-1.8	-
제조업 PMI	55.5	56.0	54.9	56.5	56.9	59.1	58.8	57.5	58.3	58.1	57.5	56.5
서비스업 PMI	58.4	56.9	59.0	61.8	60.6	61.2	60.8	60.2	60.5	60.3	60.9	58.9
종합 PMI	58.4	57.4	58.5	61.2	60.6	61.8	61.5	60.5	60.9	60.7	60.7	59.3
상품 및 서비스세(GST) (INR trn)	1.7	1.7	1.6	1.7	1.7	1.8	2.1	1.7	1.7	1.8	1.7	1.7
고용 부문												
실업률(%)*	9.4	8.9	8.7	6.8	8.0	7.4	8.1	7.0	9.2	7.9	8.5	-
도시 실업률(%)**	6.5		6.7				6.6			-		
통화 부문												
소비자물가지수(CPI)	4.9	5.6	5.7	5.1	5.1	4.9	4.8	4.8	5.1	3.5	3.7	-
근원 CPI	4.2	4.1	3.8	3.5	3.4	3.3	3.2	3.1	3.1	3.4	3.3	-
도매물가지수(WPI)	-0.5	0.3	0.7	0.3	0.2	0.5	1.3	2.6	3.4	2.0	1.3	-
M3(총유동성)	10.8	11.2	11.0	11.0	10.9	11.1	10.9	12.1	9.7	10.0	10.2	10.4
대출	14.6	15.4	14.9	15.4	15.8	15.5	14.5	16.4	13.4	14.5	14.4	14.2
총예금	13.6	13.6	14.0	13.2	13.6	13.7	13.8	13.6	13.6	12.6	11.3	11.1
기준금리(%)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대외 부문												
수출	5.8	-3.2	0.8	4.3	11.8	-0.7	1.1	9.1	2.5	-1.8	-9.3	-
수입	9.6	-4.3	-4.8	1.0	12.2	-6.0	10.3	7.7	5.9	7.4	3.3	-
비 석유·금 수입	5.8	-3.4	-1.0	-0.9	8.8	-2.7	0.5	1.1	5.9	-	-	-
무역 수지(10억 달러)	-30.0	-20.7	-19.9	-16.0	-18.7	-15.6	-19.1	-23.8	-21.0	-	-	-
외환보유고(10억 달러)	591	604	620	617	619	643	640	649	652	667	-	-
순 FII 유입	-2.1	2.9	10.1	-0.8	3.8	6.3	-1.9	-1.5	5.0	5.8	-	-
FII 주식	-2.9	1.1	7.9	-3.1	0.2	4.2	-1.0	-3.1	3.2	3.9	-	-
FII 채권	0.8	1.8	2.2	2.4	2.7	1.6	-1.3	1.1	1.8	2.7	-	-
순 FDI	5.9	2.9	-3.9	5.7	0.3	-3.7	4.0	3.3	-	-	-	-
USD/INR(월말)	83.3	83.4	83.2	83.0	82.9	83.4	83.4	83.5	83.4	83.7	-	-

주: 도시 실업률은 분기별 전 연령 기준이며, 근원 CPI는 인도중앙은행(RBI) 정의를 따름.

자료: *는 CMIE(검색일: 2024.8.29.), **는 MoSPI(2024.8.16), "Quarterly Bulletin, Periodic Labour Force Survey (APRIL - JUNE 2024)," p. 6, 이외 데이터는 Deutsche Bank(2024), "India Economic Weekly"; The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CSO), MoSPI, Government of India, RBI. 2024. 「RBI Bulletin October 2024」 등을 활용하여 정리

2.

총선 100일 여론조사 주요내용

김민희

가. 국민민주연합(NDA) 정부에 대한 평가

■ 본고는 2024년 9월 인도 언론사인 인디아 투데이(India Today)가 실시한 2024년 총선 100일 여론 조사(Mood of the Nation, 이하 MOTN)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MOTN에 따르면 2024년 4~6월 진행된 총선(Lok Sabha)이 8월에 진행되었다면 여당인 BJP를 중심으로 한 국민민주연합(NDA)이 실제 결과보다 6석을 더 차지했을 것으로 조사됨(표 2-1 참고).

- 지난 총선에서 BJP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당인 NDA가 293석을 차지하고, INC가 주도하는 연합정당 INDIA는 234석을 차지하였으나, 금번 여론 조사에 따르면 NDA가 6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반면 INDIA는 2석을 잃을 수 있었을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최대 야당인 INC 의석도 7석 더 많았을 것으로 조사됨.

표 2-1. 인도 총선 결과 및 예상치

구분	2019년 총선 결과	2024년 총선 결과	24.8월 기준 예상치
NDA	353	293	299
(BJP)	(303)	(240)	(244)
INDIA	91	234	232
(INC)	(52)	(99)	(106)
기타	99	16	11
총합	543	543	-

주: ()는 연합당을 주도하는 정당임.

자료: India Today(2024.9.2.) p.27을 참고하여 정리.

■ 차기 총리로도 여전히 모디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한편, 야당에서는 INC 소속의 라훌 간디의 지지율이 높게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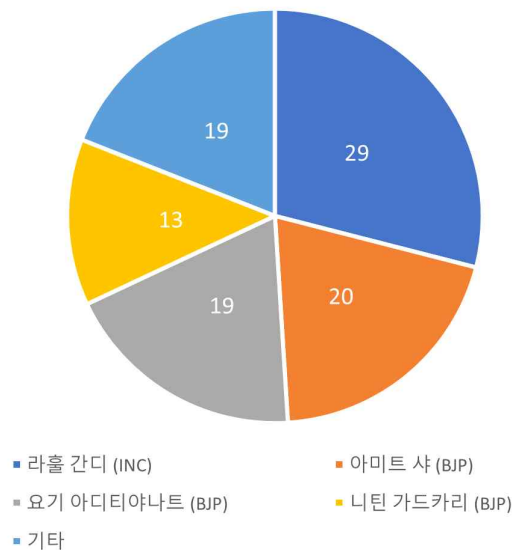
- '모디 총리를 긍정적(outstanding or good)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실시된 여론 조사보다 2%p 감소한 58.6%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2019년 71%, 2020년 78%에 비하면 현저히 하락한 수치임.

○ '모디 총리가 뛰어나다(outstanding)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설문 결과인 41.8%보다 7.5%p 하락한 34.3%가 그렇다고 답하였음.

○ 반면 모디 총리를 부정적(poor or very poor)으로 보는 비율은 23%(poor: 10%, very poor: 13%)로 2023

- 년 1월의 16%에 비해 높아짐.
- 차기 총리 후보 양자 대결에서는 모디 총리(49%)가 라홀 간디(22%)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음.
 - 현재 모디 총리와 라홀 간디의 지지율은 약 27%가 차이 나지만, 모디 총리는 지난 여론조사보다 5%p 하락한 수치이고 라홀 간디는 8.5%p 상승한 수치임.
 - 모디 총리를 제외한 모디 총리의 후임자는 라홀 간디(Rahul Gandhi, 29%), 아미트 샤(Amit Shah, 20%),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19%),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13%) 순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그림 2-1 참고).¹⁾
 - 한편 2024년 6월 총선 결과는 △BJP와 모디 총리의 연임(Vote for continuity of BJP and PM Modi, 37%) △BJP의 오만에 반대(Vote against arrogance of the BJP, 14%) △강력한 야당에 대한 열망(People want a strong Opposition, 13%) △경제적 이유(Economy needs attention, 11%) △INDIA 연합 효과(Effectiveness of INDIA block, 7%) 등의 투표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1. 모디 총리의 후임자 지지율



자료: India Today(2024.9.2.) p.32를 참고하여 정리.

■ BJP를 중심으로 한 NDA 정부의 주요 성과로는 아요디아 힌두교 사원 건설이, 주요 실정(Failure)으로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조사됨(그림 2-2, 2-3 참고).

- NDA 정부의 주요 업적으로는 아요디아 힌두교 사원(Ram Temple) 및 카시 비슈와나트(Kashi Vishwanath) 회랑 건설(18%),²⁾ 카슈미르 자치 보장(370조) 폐지(10%),³⁾ 복지 정책(9%), 부정부패 타파(8%), 경제성장(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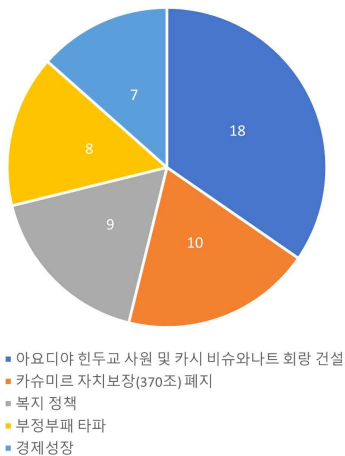
1) 이 중 라홀 간디만이 연합정당인 INDIA를 주도하는 INC 소속이며, 이외에는 현재 여당인 BJP 소속임.

2) 이는 가시 비슈와나트 사원과 갠지스 강의 계단식 둑(Ghat)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임(자료: NDTV. 2021.12.13. 'What is Kashi-Vishwanath Corridor Project: Explained in 5 Points,' <https://www.ndtv.com/india-news/what-is-kashi-vishwanath-corridor-project-explained-in-5-points-2648407>(검색일: 2024.10.4.).

3) 2023년 12월 인도 대법원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지위(Union Territory, 이하 UT)를 보장하는 헌법 370조의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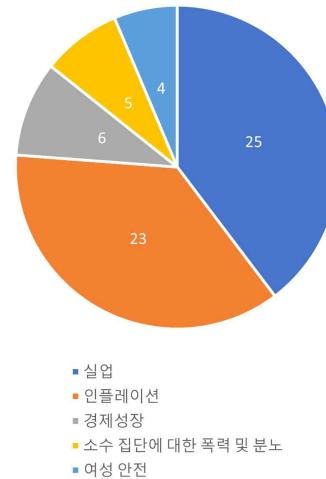
- ‘모디 정부가 인도 내 부정부패를 감소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2024년 2월보다 10%p 증가한 56%가 ‘그렇다’라고 답함.
- 반면, NDA 정부의 주요 실정으로는 실업(25%), 인플레이션(23%), 경제성장(6%), 소수 집단에 대한 폭력 및 분노(5%), 여성 안전(4%) 순으로 조사됨.
- ‘인도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실업(29%), 인플레이션(20%), 가족 소득/빈곤(6%), 농가 문제(farm distress, 6%), 전기/도로/물(5%) 순으로 답함.
 - 지난 3년간 모디 정부가 약 8,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하였지만, 응답자의 78.2%는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turned serious)’라고 답함.
 - 채소 가격 상승률이 8개월간 두 자릿수를 기록하여 2024년 6월 식품 가격 상승률이 9.4%를 기록하였음.
- 도시 지역은 약 33%가 NDA 정부에 만족을 표한 반면 농촌 지역은 5%p 낮은 28%를 기록함.

그림 2-2. NDA 정부 주요 성과



자료: India Today(2024.9.2.) p.33을 참고하여 정리.

그림 2-3. NDA 정부 주요 실정



자료: India Today(2024.9.2.) p.33을 참고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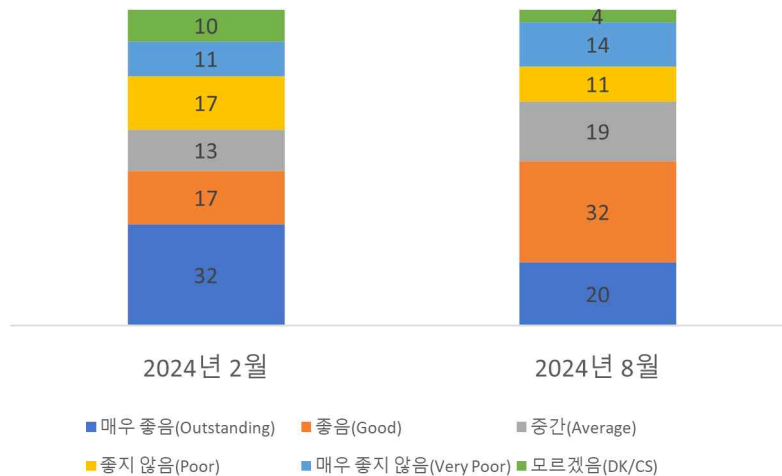
- ‘NDA 정부가 5년간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55%의 응답자가 ‘예’, 35%가 ‘아니오’, 10%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함.

나. 국민민주연합(NDA) 정부 경제정책 평가

- NDA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 3분의 1 이상이 추후 6개월간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함(그림 2-4 참고).
- 2023/24년 인도 GDP 성장률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정부 지출 및 투자 증가를 기반으로 8.2%를 달성한 데 이어 2024/25년에는 7%대의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응답자의 52%가 ‘긍정적(outstanding or good)’으로, 25%가 ‘중간(average)’으로, 19%만이 ‘부정적(poor or very poor)’이라고 응답함.

-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직전 여론 조사(2024.2월)의 49%에서 3%p 증가하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28%에서 3%p 감소하였음.
- 그러나 아주 긍정적이다(outstanding)는 답변은 직전 여론 조사(2024.2월) 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매우 부정적(very poor)'이라고 답한 사람도 3%p 증가함.
- 추후 6개월간의 경제 전망 관련 '개선될 것(will improve)'이라는 답변은 38%, '악화할 것(will get worse)'이라는 답변은 30%, '동일할 것(will remain same)'이라는 답변이 21%를 차지함.
- 악화 전망이 30%를 차지하지만, 과거 만모한 싱 정부와 비교 시 모디 정부가 경제적으로 나은 성과를 낸다는 응답이 직전 여론 조사(2024.2월) 대비 10%p 증가한 57%를 차지함.

그림 2-4. 모디 정부 경제에 대한 평가(2024년 2월과 8월)



자료: India Today(2024.9.2.) p.38을 참고하여 정리.

■ 금번 조사에 따르면 NDA 정부하에서 대규모 사업자가 가장 혜택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음.

- NDA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부문으로는 대규모 사업자(Big Business, 58%), 농민(9%), 소규모 사업자(8%), 급여자(Salaried Class, 8%), 일용직 임금 근로자(Daily Wage Earners, 5%), 기타(4%) 순으로 답변
- '모디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당신의 경제적 지위(economic status)가 어떻게 변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개선되었다(improved)'와 '동일하다(remain the same)'라는 답변 비율이 각각 33%, 그리고 '악화하였다(deteriorated)'가 32%를 차지
- '당신 가정의 소득이 개선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34%는 '동일할 것이다(will remain the same)'라고, 29%는 '개선될 것이다(will improve)'라고, 27%는 '악화될 것이다(will get worse)'라고 답변함.
- '전년도와 비교시 현재 지출(daily expenses)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63%가 '지출 관리가 어려워졌다'라고 답변하고, 28%는 '지출이 늘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still manageable)'라고 답한 반면, 7%만이 '지출이 감소하였다'라고 답함.
- '중앙 정부가 지난 3년간 8,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주장(claim)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57%가 '아니오'라고 답하였음.

-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9%가 '심각하다(Very serious and somewhat serious)'고 답함.
-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의 급여가 25~30% 적음에도 공직(government job)을 택하겠다는 응답이 약 70%를 차지함.
 - 그러나 '정부가 손해를 보는 국영기업에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Should the government be dis-investing the loss-making PSUs)'라는 질문에 과반인 56%가 '예'라고 답함.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7월 발표한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세금 공제액 기준을 높인 것에 대해 만족 의견이 불만족 의견보다 10%p 높게 조사됨.

- 2024년 예산(안)을 통해 5년에 걸쳐 2조 루피를 약 4,100만 명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또한, 표준 공제 기준을 50,000루피에서 75,000루피로 확대한 데 이어 연금 수급자의 공제액 기준은 15,000루피에서 25,000루피로 확대함.
- 이러한 변동과 관련하여, '만족한다(Totally satisfied and somewhat satisfied)'라는 답변은 49%, '불만족스럽다(Totally satisfied and somewhat dissatisfied)'라는 답변은 39%임.
- 하지만 2024년 예산(안)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답변과 아니라는 답변은 각각 45%와 44%를 차지하며 비슷하게 조사되었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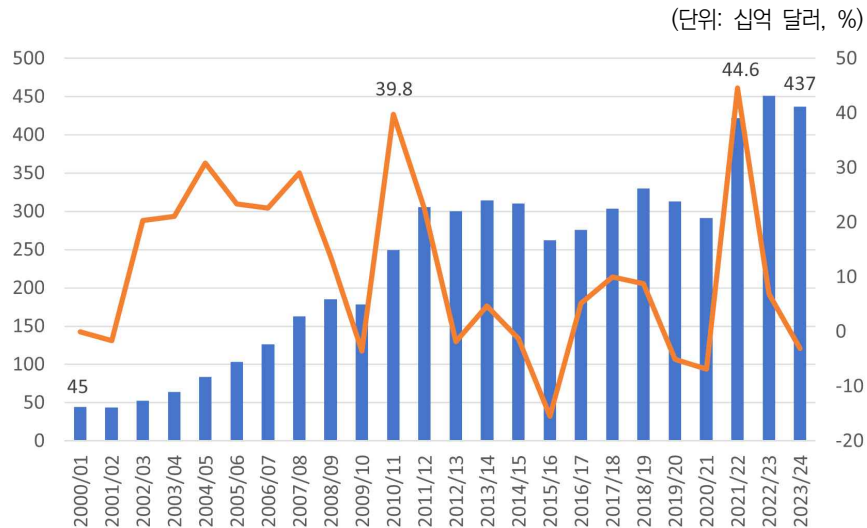
인도의 수출구조 변화: 국가 및 상품

Apoorva Chowdhary

■ 인도의 수출은 지난 20년 이상 연평균성장률 10% 이상을 기록하며 2000/01년 440억 달러에서 2023/24년 4,370억 달러로 증가함(그림 3-1 참고).

- 인도의 수출은 2012/13년까지 급격하게 확대된 이후 다소 정체기에 들어섰으나 2021/22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됨.
-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2조 달러의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품 및 시장 다각화,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⁴⁾

그림 3-1. 인도의 총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2000/01년~2023/24년)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tradedat.commerce.gov.in/eidb/default.asp>(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가. 수출국가의 변화

■ 2023/24년 기준 상위 10대 수출국은 미국, UAE, 네덜란드, 중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홍콩임(그림 3-2 참고).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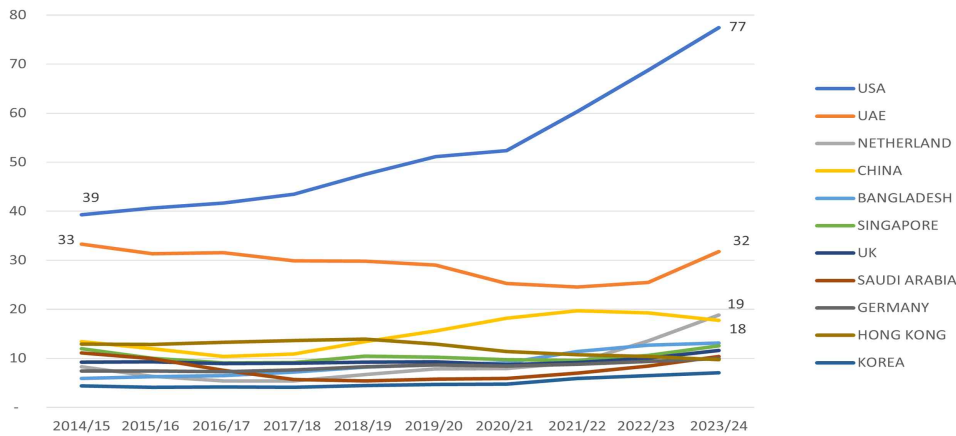
- 2023/24년 기준 10대 수출국과의 교역량은 전체 수출의 50.4%를 차지함.

4) India Stats, 'India's Global Trade Dynamics: A 20 Years Overview,' https://www.indiastat.com/SOCIO_PDF/India-Global-Trade-Dynamics-20-Years-Overview/India-Global-Trade-Dynamics-20-Years-Overview.pdf(accessed on 1st October 2024)

5) 본 고에서는 단기적인 내외부적 영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3년 이동 평균(3-year moving average)을 주로 활용하여 인도의 수출구조 변화 및 다각화 동향을 분석함.

그림 3-2. 인도의 국가별 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tradestat.commerce.gov.in/eidb/default.asp>(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 3년간 이동 평균을 적용한 10대 국가별 수출점유율 증가, 감소 및 정체 국가는 다음과 같음(표 3-1 참고).

- 지난 10년간 미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의 수출점유율은 증가하며 주요 수출파트너로 거듭난 반면, UAE,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영국, 싱가포르, 독일 등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며 확장세가 주춤함.

표 3-1. 인도의 주요 수출국 구조 변화(2014/15년 및 2023/24년)

국가	2014/15년		국가	2023/24년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미국	39,249	12.7%	미국	77,408	17.7%
UAE	33,288	10.8%	UAE	31,760	7.3%
중국	13,431	4.4%	네덜란드	18,843	4.3%
홍콩	12,870	4.2%	중국	17,742	4.1%
싱가포르	11,980	3.9%	방글라데시	13,146	3.0%
사우디아라비아	11,055	3.6%	싱가포르	12,519	2.9%
영국	9,237	3.0%	영국	11,597	2.7%
네덜란드	8,295	2.7%	사우디아라비아	10,348	2.4%
독일	7,433	2.4%	독일	9,953	2.3%
일본	6,100	2.0%	홍콩	9,707	2.2%
한국	4,338	1.4%	한국	7,052	1.6%
기타	151,129	49.0%	기타	216,600	49.6%
총합	308,406	100.0%	총합	436,674	100.0%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ard.aspx>(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 [증가] 인도와 미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과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며 인도의 수출 규모 확대를 견인함.

- (미국) 미국은 2014/15년부터 2023/24년까지 인도의 최대 수출지로서 1위를 유지(점유율 12.7%→17.7%) 하며 가장 중요한 수출파트너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특히 IT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의약품 및 전자 제품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함.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수출 점유율은 2014/15년 약 2.7%(8위)에서 2023/24년 4.3%(3위)로 증가하며 인도의 유럽 내 주요 수출 허브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엔지니어링 제품 및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서 비롯됨.
- (방글라데시) 인도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지리적 인접성에 의한 전략적 시장이라는 입지에 기반하여 5위의 수출국(점유율 1.9%→3%)으로 거듭난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농산물, 기계 등임.

■ [감소] 인도의 대UAE 및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점유율이 감소했음에도 중동 지역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주요 수출 파트너이며, 대중국 및 대홍콩 수출점유율의 하락은 지정학적 긴장에서 기인한 것임.

- (UAE) 인도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수출파트너인 UAE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4/15년 11%에서 2023/24년 7.3%로 감소함.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점유율은 2014/15년 3.6%에서 2023/24년 2.4%로 감소했는데 이는 섬유 및 기계와 같은 전통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반영
- (중국 및 홍콩)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4/15년 3위(4.4%)에서 2023/24년 4위(4.1%)로 소폭 하락, 특히 2020년 국경 마찰 이후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홍콩의 수출점유율은 4위(약 4.2%)에서 10위(2.2%)로 급격하게 하락함.

■ [정체] 싱가포르, 영국, 독일 등에 대한 수출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확장세를 이어오며 주요 무역 및 금융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 (싱가포르) 인도의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 점유율은 2014/15년 3.9%에서 2023/24년 2.9%로 소폭 감소했으나 인도에게 싱가포르는 여전히 주요 금융 및 무역 허브임.
- (영국) 인도 전체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15년 3%에서 2023/24년 2.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중요한 수출파트너로 최근 FTA 협상이 진행 중임.
- (독일) 인도의 대독일 수출 점유율은 2014/15년 2.4%에서 2023/24년 2.3%로 0.1%p 감소하였으나 엔지니어링 제품과 화학 제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출시장임.

■ 2014/15년 대비 2023/24년 한국의 수출점유율은 1.4%에서 1.6%로 소폭 상승한 반면 일본은 2.0%에서 1.3%로 하락함

- 2014/15년 인도의 대한국 수출액은 43억 3,800만 달러에서 2023/24년 70억 520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대일본 수출액은 동기간 61억 달러에서 55억 9,8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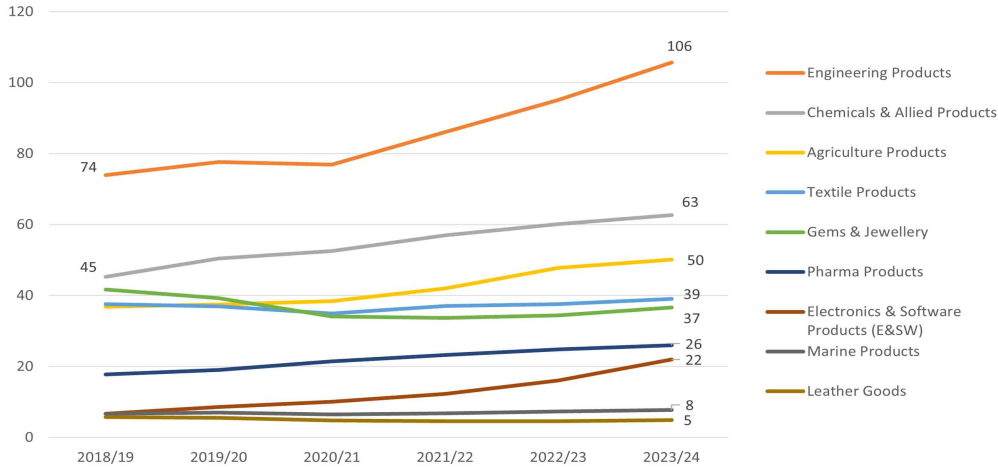
나. 수출품목의 변화

■ 2023/24년 엔지니어링 제품은 인도 전체 수출의 24%(약 1,060억 달러)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어 화학 및 관련 제품(약 630억 달러, 14%), 농산물(약 500억 달러, 11%), 섬유 제품(390억 달러, 9%)과 보석 및 귀금속(370억 달러, 8%) 등이 있음(그림 3-3 참고).

- 2023/24년 기준 9대 수출 품목의 비중은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

그림 3-3. 인도의 제품별 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tradestat.commerce.gov.in/eidb/default.asp> (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 3년간 이동 평균을 적용한 9대 품목별 수출점유율 증가, 감소 및 정체 품목은 다음과 같음(표 3-2 참고).

- 지난 6년간 전자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섬유, 보석 및 귀금속, 해양수산물, 가죽 제품의 비중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엔지니어링, 화학, 농산물, 제약 등의 점유율 추이는 다소 정체됨.

표 3-2. 인도의 주요 수출 제품 구조(2018/19년 및 2023/24년)

품목	2018/19년		품목	2023/24년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엔지니어링 제품	73,966	24.4%	엔지니어링 제품	105,698	24.2%
화학 및 관련 제품	45,310	14.9%	화학 및 관련 제품	62,695	14.4%
보석 및 귀금속	41,736	13.8%	농산물	50,084	11.5%
섬유 제품	37,612	12.4%	섬유 제품	39,040	8.9%
농산물	36,816	12.1%	보석 및 귀금속	36,588	8.4%
제약 제품	17,738	5.9%	제약 제품	25,946	5.9%
전자 및 소프트웨어 제품	6,718	2.2%	전자 및 소프트웨어 제품	21,954	5.0%
해양수산물	6,698	2.2%	해양수산물	7,741	1.8%
가죽 제품	5,693	1.9%	가죽 제품	4,943	1.1%
기타	30,864	10.2%	기타	82,040	18.8%
총합	303,152	100.0%	총합	436,729	100.0%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ard.asp> (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 [증가] 전자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수출은 2018/19년 67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며 2023/24년 21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함.

- [감소] 섬유, 보석 및 귀금속, 가죽 제품 등의 수출은 소폭 증가 혹은 감소세를 보여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감소함.

 - (섬유 제품) 섬유 제품의 수출은 2018/19년 376억 달러에서 2023/24년 390억 달러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에서 9%로 감소함.
 - (보석 및 귀금속) 인도의 보석 및 귀금속 수출은 2018/19년 41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였으나, 소비 선호 변화 및 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 규모가 2023/24년 365억 달러(8%)로 감소함.
 - (가죽 제품) 가죽 제품의 수출은 합성 대체물과 엄격한 환경 규제 등에 의해 2018/19년 56억 달러에서 2023/24년 49억 달러까지 감소함.

- [정체] 엔지니어링 제품, 화학 제품, 농산물, 제약 제품, 전자 및 소프트웨어 제품 등의 수출 규모는 성장하였으나 수출점유율은 다소 정체

 - (엔지니어링 제품) 인도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엔지니어링 제품의 수출은 2018/19년 739억 달러에서 2023/24년 1,056억 달러로 확대되며 수출점유율이 24.4%에서 24.2%로 소폭 하락함.
 - (화학 및 관련 제품) 화학 및 관련 제품이 수출액은 453억 달러에서 636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19년 14.9%에서 2023/24년 14.4%로 소폭 하락
 - (농산물) 농산물 수출은 2018/19년 368억 달러에서 2023/24년 5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에서 11.5%로 감소
 - (제약 제품) 제약 부문에서의 수출은 복제약, APIs 및 백신 등을 중심으로 2018/19년 177억 달러에서 2023/24년 25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수출 비중은 5.9%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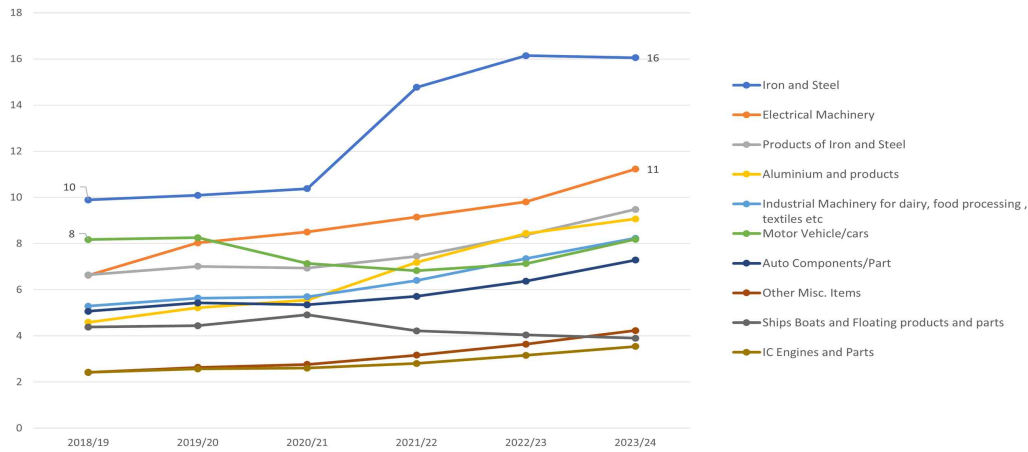
- 한편, 인도 전체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엔지니어링 제품 및 화학 제품, 그리고 지난 6년간 수출점유율이 가장 크게 확대된 전자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세부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음.

- ① 엔지니어링 제품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엔지니어링 제품은 2023/24년 기준 세부적으로는 철강(15%), 전기 기계(11%), 철강 제품(9%), 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9%) 등 순으로 구성(그림 3-4, 표 3-3 참고)

 - 철강은 2018/19년 전체 엔지니어링 제품 수출 중 13.4%(98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이는 상승하며 2023/24년에는 15%(160억 달러)까지 확대, 글로벌 철강 부문에서의 인도의 역량 강화를 보여줌.
 - 전기 기계가 엔지니어링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19년 9%(66억 달러)에서 2023/24년 11%(112억 달러)로 증가함.
 - 2018/19년 대비 2023/24년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 모두 엔지니어링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각각 94억 달러와 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그림 3-4. 인도 엔지니어링 제품별 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tradestat.commerce.gov.in/eidb/default.asp> (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표 3-3. 인도 주요 엔지니어링 제품 수출구조(2018/19년 및 2023/24년)

엔지니어링 제품	2018/19년		엔지니어링 제품	2023/24년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Iron and Steel	9,890	13.4%	Iron and Steel	16,054	15.2%
Motor Vehicle/cars	8,173	11.0%	Electrical Machinery	11,227	10.6%
Products of Iron and Steel	6,642	9.0%	Products of Iron and Steel	9,482	9.0%
Electrical Machinery	6,625	9.0%	Aluminium and products	9,067	8.6%
Industrial Machinery for dairy, food processing, textiles etc	5,290	7.2%	Industrial Machinery for dairy, food processing, textiles etc	8,233	7.8%
Auto Components/Part	5,066	6.8%	Motor Vehicle/cars	8,182	7.7%
Aluminium and products	4,592	6.2%	Auto Components/Part	7,284	6.9%
Ships Boats and Floating products and parts	4,382	5.9%	OTHER MISC. ITEMS	4,231	4.0%
Aircrafts and Spacecraft parts and products	2,454	3.3%	Ships Boats and Floating products and parts	3,898	3.7%
IC Engines and Parts	2,426	3.3%	IC Engines and Parts	3,540	3.3%
Others	18,427	24.9%	Others	24,499	23.2%
Total	73,966	100.0%	Total	105,6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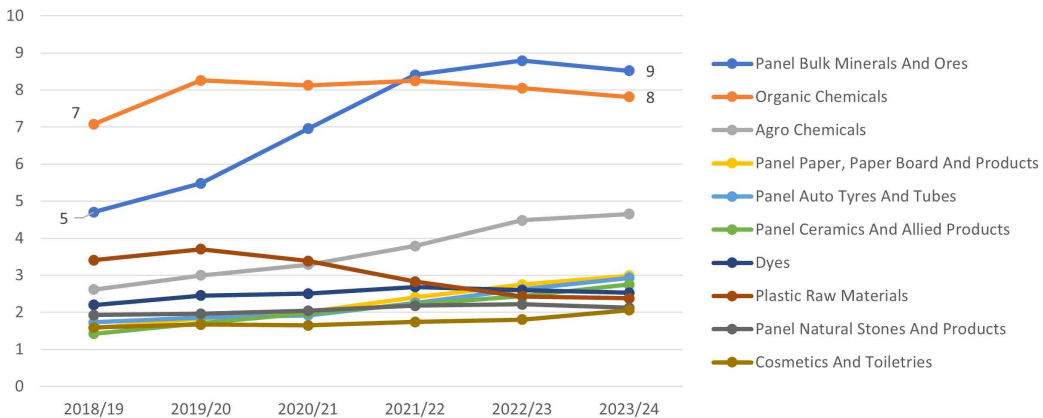
주: 3-Year Moving Averages. IC는 Internal Combustion을 뜻함.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rd.aspx>(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 [② 화학 제품] 2023/24년 화학 및 관련 제품의 총수출은 2018/19년 280억 달러 대비 약 37%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광물 및 광석, 유기화학물질, 농업용 화학물질 등이 주요 제품은 수출이 지속 확대된 반면 플라스틱 원료 수출은 감소함(그림 3-5, 표 3-4 참고).

- 지난 6년간 대규모 광물 및 광석(Panel Bulk Minerals and Ores)과 유기화학물질(Organic Chemicals)의 수출이 지속 성장하며 화학 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함.
 - 2018/19년 유기화학물질의 수출은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화학 제품 수출에서 가장 많은 16%를 차지하였으나, 2023/24년 소폭 상승한 78억 달러를 수출하며 점유율은 4%p 하락한 12%를 기록함.
 - 2018/19년 대규모 광물 및 광석 수출은 47억 달러로 유기화학물질에 이어 2위(전체 화학 제품 수출의 10%)였으나, 지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2023/24년 약 2배에 가까운 85억 달러를 수출, 전체 화학 제품 수출의 14%를 차지함.
- 농업용 화학물질의 수출은 2018/19년 26억 달러에서 2023/24년 46억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상승하며 2023/24년 전체 화학 제품 수출의 7%를 차지
-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한 플라스틱 원료(Plastic Raw Materials) 수출은 2018/19년 34억 달러에서 2023/24년 2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화학 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8%에서 4%까지 감소함.

그림 3-5. 인도 화학 제품별 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tradestat.commerce.gov.in/eidb/default.asp>(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표 3-4. 인도 주요 화학 제품 수출구조(2018/19년 및 2023/24년)

화학 제품	2018/19년		화학 제품	2023/24년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Organic Chemicals	7,077	15.6%	Panel Bulk Minerals And Ores	8,518	13.6%

Panel Bulk Minerals And Ores	4,706	10.4%	Organic Chemicals	7,811	12.5%
Plastic Raw Materials	3,410	7.5%	Agro Chemicals	4,653	7.4%
Agro Chemicals	2,616	5.8%	Panel Paper, Paper Board And Products	2,987	4.8%
Dyes	2,198	4.9%	Panel Auto Tyres And Tubes	2,927	4.7%
Panel Natural Stones And Products	1,924	4.2%	Panel Ceramics And Allied Products	2,747	4.4%
Panel Auto Tyres And Tubes	1,730	3.8%	Dyes	2,530	4.0%
Cosmetics And Toiletries	1,589	3.5%	Plastic Raw Materials	2,377	3.8%
Panel Paper, Paper Board And Products	1,568	3.5%	Panel Natural Stones And Products	2,124	3.4%
Panel Ceramics And Allied Products	1,425	3.1%	Cosmetics And Toiletries	2,062	3.3%
Others	17,067	37.7%	Others	23,961	38.2%
Total	45,310	100.0%	Total	62,6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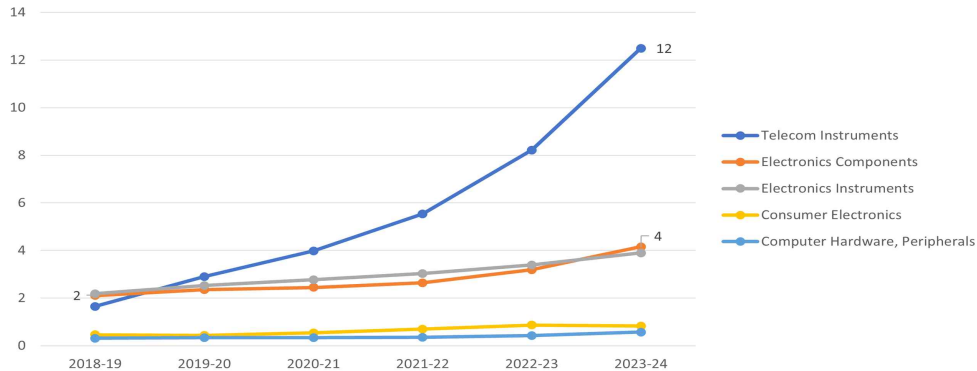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ard.aspx>(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 [③ 전자 및 소프트웨어 제품(E&SW)] 전자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총수출은 2018/19년 67억 달러에서 2023/24년 219억 달러로 약 227% 성장하며 글로벌 전자 및 통신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의 입지가 확대(그림 3-6, 표 3-5 참고)
- 통신 기기(Telecom Instruments)의 수출은 2018/19년 16억 달러에서 2023/24년 124억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전체 E&SW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5%에서 2배 이상인 57%로 증가함.
 - 전자 부품(Electronics Components)과 전자 기기(Electronics Instruments)는 2018/19년 각각 21억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지속 성장하며 2023/24년에 각각 41억 달러와 38억 달러를 기록, 전체 E&SW 수출 중 19%와 18%를 차지함.
 - 소비자 전자 제품(Consumer Electronics) 및 컴퓨터 하드웨어, 주변 기기(Computer Hardware and Peripherals) 수출은 2018/19년 각각 4억 달러와 3억 달러를 기록,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2023/24년에는 8억 달러와 5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함.

그림 3-6. 인도 E&SW 제품별 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tradedstat.commerce.gov.in/eidb/default.asp>(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표 3-5. 인도 주요 E&SW 제품 수출구조(2018/19년 및 2023/24년)

E&SW 제품	2018/19년		E&SW 제품	2023/24년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수출 (백만달러)	수출점유율
Electronics Instruments	2,185	32.5%	Telecom Instruments	12,496	56.9%
Electronics Components	2,108	31.4%	Electronics Components	4,156	18.9%
Telecom Instruments	1,651	24.6%	Electronics Instruments	3,899	17.8%
Consumer Electronics	462	6.9%	Consumer Electronics	833	3.8%
Computer Hardware, Peripherals	312	4.7%	Computer Hardware, Peripherals	570	2.6%
Total	6,718	100.0%	Total	21,954	100.0%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ard.aspx>(accessed on 10th October 2024)

다.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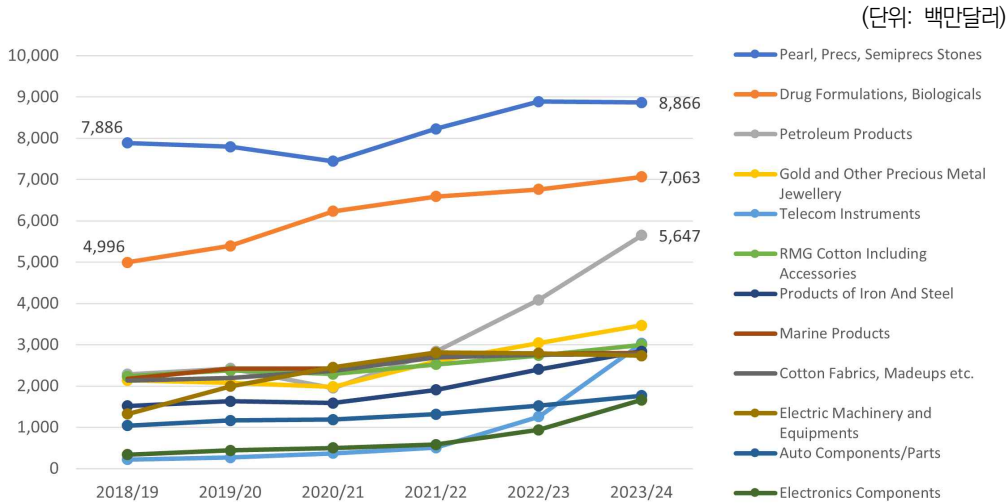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인도의 수출 규모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미국과 네덜란드,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은 반면 UAE, 중국 등과의 교역은 다소 주춤함.

- 미국이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14/15년 12.7%에서 2023/24년 17.7%까지 확대되며 가장 중요한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네덜란드는 8위 수출국에서 3위로 가장 큰 개선을 보이고, 방글라데시는 5위에 오르며 주요 교역국으로 거듭남.

- 반면, 중국과 홍콩은 주요 무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하락세(중국: 3위→4위, 홍콩: 4위→10위)를 보였으며, UAE는 2위를 유지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7%로 감소함.

- [① 미국] 인도의 대미국 수출은 2018/19년 475억 달러에서 2023/24년 774억 달러까지 확대된 가운데 보석, 의약품 조제 및 바이오 등의 수출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석유제품과 통신 기기 수출이 급증함(그림 3-7 참고).
 - 2023/24년 진주, 보석 및 준보석(Pearl, Precs, Semiprecs Stones) 수출이 8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11.5%를 차지하였으며, 의약품 조제 및 바이오(Drug Formulations, Biologicals)는 9.1%(70억 달러),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은 7.3%(56억 달러)를 차지함.
 - 석유제품 수출은 2018/19년 2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하였으나, 수출이 2배 이상 성장
 - 핸드폰 등 통신 기기(Telecom Instruments), 전기 기계 및 장비(Electric Machinery and Equipments), 자동차 부품(Auto Components/Parts), 전자 부품(Electronics Components) 등 기계류의 수출이 눈에 띄게 확대됨.
 - 특히 통신 기기 수출은 2018/19년 2억 달러에서 2023/24년 30억 달러로 약 15배 이상 확대되었고, 전자 부품 수출은 3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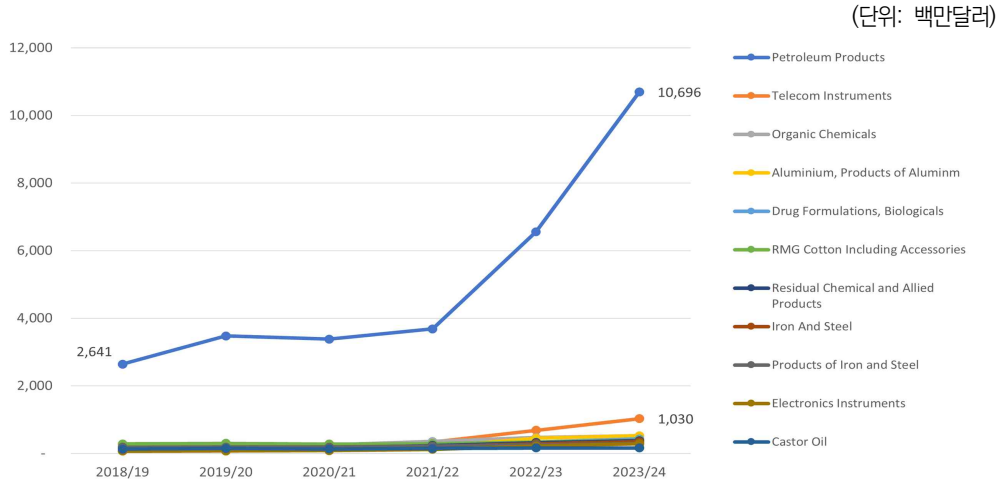
그림 3-7. 인도의 대미국 주요 수출 제품 추이



주: 3-Year Moving Averages. 기타(Remaining)는 제외.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ard.aspx>(accessed on 11th October 2024)

- [② 네덜란드] 인도의 대네덜란드 수출은 2018/19년 67억 달러에서 2023/24년 188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서 기인함(그림 3-8 참고).
 - 2023/24년 인도의 대네덜란드 석유제품 수출은 106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57%를 차지하는데, 이는 2018/19년의 26억 달러(전체 교역량의 39.3%)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통신 기기 수출은 2018/19년 전체 수출의 2%(1억 3,6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23/24년 5%(10억 달러)까지 확대됨.
 - 이외에도 유기화학물질(2억 1,000만 달러→5억 2,200만 달러), 알루미늄 및 제품(8,900만 달러→5억 2,100만 달러), 제약 제조 및 바이오(1억 1,700만 달러→4억 2,800만 달러)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지속 확대

그림 3-8. 인도의 대네덜란드 주요 수출 제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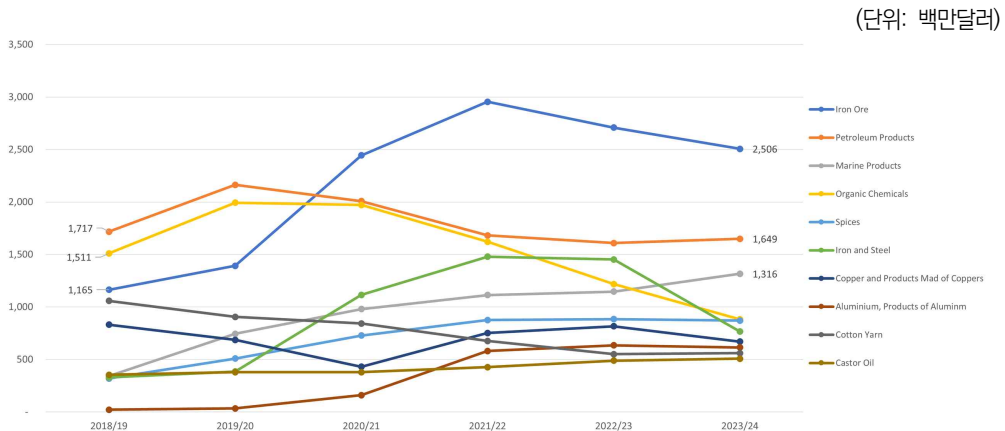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ard.aspx>(accessed on 11th October 2024)

■ [③ 중국] 인도의 대중국 수출은 2018/19년 134억 달러에서 2023/24년 17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 석유제품, 해양수산물 등임(그림 3-9 참고).

- 인도의 대중국 철광석(iron Ore) 수출은 2018/19년 11억 6,500만 달러(전체 수출의 8.7%)에서 2023/24년 25억 600만 달러(전체 수출의 14.1%)로 2배 이상 확대
- 석유제품 수출은 2018/19년 17억 1,700만 달러에서 2023/24년 16억 4,9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수출의 9.3%를 차지하며 2위의 수출 품목임.
- 해양수산물(Marine Products) 수출은 2018/19년 3억 4,200만 달러(수출점유율: 2.5%)에서 2023/24년 13억 1,600만 달러(7.4%)까지 확대되며 전체 수출 중 3위를 달성함.
- 2018/19년 수출품 중 3번째를 기록한 유기화학물질(11억 6,500만 달러) 수출은 지속 감소하며 2023/24년 8억 8,200만 달러에 그침.

그림 3-9. 인도의 대중국 주요 수출 제품 추이



주: 3-Year Moving Averages.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nitoring Dashboard,' <https://dashboard.commerce.gov.in/commercedashboard.aspx>(accessed on 11th October 2024)

4.

2047년 인도경제

Apoorva Chowdhary

- **일시** : 2024년 7월 5일(금)
- **장소** : India International Centre
- **참석자** : Martin Wolf(Chief Economic Commentator, Financial Times), Suman Berry (Vice President, NITI Aayog), Montek Singh Ahluwalia (Former Deputy Chairman, Planning Commission of India), Neelkanth Mishra (Chairperson, UIDAI), Pradeep S Mehta (Secretary General, CUTS International)
- **주제** : 2047년까지 인도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What would it take India to become a developed country by 2047?)

1. 주요 발표 내용

- [글로벌 경제 동향] 2008-2012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1인당 GDP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하였으며, 최근 선진국들은 연평균 약 1%의 저성장률을 경험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신흥 경제국들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 성장 전망] 인도는 2047년까지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본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이 7.5% 이상 지속되어야 함.
 - 현재 인도의 1인당 GDP(PPP 기준)는 그리스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인도가 2047년까지 상위 중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려면 신속한 경제 발전이 필수적임.
 - 인도는 2047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도전 과제 및 정책적 함의] 글로벌 경제 둔화는 인도의 성장 궤도에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을 위해서 인도는 경제 활력과 회복력을 자극하는 적극적인 정책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인도의 인구 배당 및 성장하는 시장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결정이 필수적임.
- [전략적 통찰] 인도의 경제 회복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기술, 인적 자원에 대한 목표 투자 등이 필요
 - 인도의 젊은 인구 배당 효과를 활용하여 기술 개발 및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과 포괄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됨.

- 이에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경제 변화를 이끄는 역할도 강조되었으며 정책 입안자들의 창의성과 기업을 육성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함.
- [결론] 인도의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정보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인도의 경제 잠재력을 활용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통찰력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2. 패널토론

① 세계 경제 동향

- [글로벌 다변화 전략] 현재 '차이나플러스원(China+1)'으로 불리는 글로벌 다변화 전략상에 인도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제조업과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자와 지원은 인도의 보수적인 정책지원과 대출 접근 방식과 비교됨.
 - 미래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 강화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중국 제품과 선별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인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글로벌 경제 동향] 인도는 선진국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글로벌 저축 잉여,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에 접근성을 높이며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경제 역학] 러-우 전쟁과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역학의 변동은 인도의 경제 전략 및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도 역시 글로벌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국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② 무역

- [무역과 자본] 대외무역은 인도의 GDP 1.6조 달러 중 약 1~1.5조 달러를 차지하는 가운데, 무역이 금융화와 생산성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
 - 인도가 개방된 자본계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의한 외부 송금(자금 유출)이 증가할 것임.
- [자유무역협정] 인도는 최근 호주 및 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영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인 데 이는 인도를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하고 무역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비관세장벽,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규범 등이 도전 과제로 대두
- [WTO 및 대외 전략] 인도의 대외 전략은 WTO로부터 방어적인 입장과 보호주의 조치로 비판을 받음에 따라 이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다자간 협정 및 유사입장국 간의 연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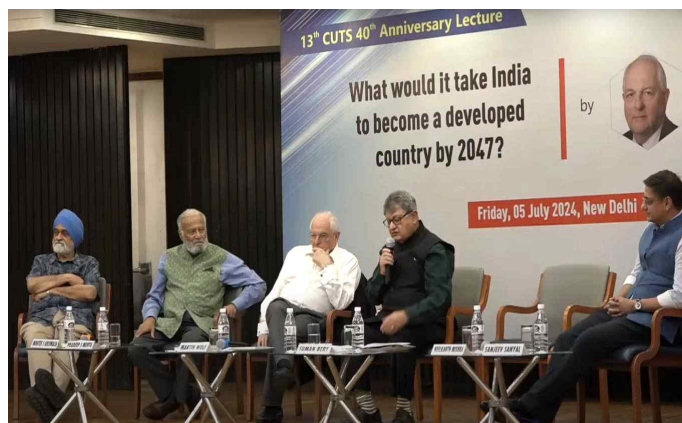
③ 경제

- [산업별 성장] 인도의 GDP 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 평균 약 6%로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인상적이지만, 산업 부문별로 성장의 차이가 있음.

- IT와 같은 서비스 부문은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며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전체 고용의 45%를 차지하는 농업 및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도전 과제임.
- 제조업 부문은 자동화 및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가운데, 인도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 미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음.
- [금융 부문 및 자본 배분] 기업 채무 해결 및 관리는 「도산 및 파산법(IBC: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 시행 이후 개선되었으나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있음.
 - IBC 도입 이후, 인도의 기업은 부채 관리를 더욱 신중하게 하고 있으며, 200대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은 2019 회계연도의 4.3조 루피에서 2024 회계연도의 12조 루피로 증가했음.
 - 인도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은 연간 평균 약 450억 달러로, 이는 투자자 신뢰를 반영하면서도 효과적인 자본 배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

④ 과제

- [내부 경제적 과제] 부동산과 도시 인프라 등과 같은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임.
 - 현재 인도 내에는 여전히 도시 인프라 개발이 부족하며, 도시에 할당되는 재정 자원의 증가가 필요
- [민주주의에서의 경제적 도전]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 중임.
 -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도 10개 주에서 여성에게 월 1,500루피의 현금 직접 이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약 1.9조 루피로, 인도 GDP의 약 6%에 해당함.
- [인구 변화] 인도의 인구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0.5% 미만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 인구성장률의 변화는 1인당 소득 및 GDP 성장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
- [국가 역량 및 효율성] 한 부문(과제)을 관리하는 부처와 부서가 분산된 가운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저해한 인도의 관료제 시스템의 낮은 효율성이 지적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델리사무소 (KIEP Delhi office) |

조총제	델리사무소 소장	cjcho@kiep.go.kr	+91.11.4075.8085
김민희	델리사무소 부소장	kmh@kiep.go.kr	+91.11.4075.8086
Apoorva Chowdhary	델리사무소 연구원	research.delhi@kiep.go.kr	+91.11.4075.8089
Haivender Kumar	델리사무소 행정원	admin.delhi@kiep.go.kr	+91.11.4075.8095